

# 한국 공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연구<sup>(i)</sup>

[1960년대 이후의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金 基 衡<sup>(ii)</sup>

〈人類社會再建研究院 院長〉

俞 道 鎮<sup>(ii)</sup>

〈國民倫理學科 副教授〉

黃 文 秀<sup>(ii)</sup>

〈國民倫理學科 專任講師〉

## 〈차 례〉

머리말—근대화의 개념

I. 한국의 전통사회적 배경

II. 근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III. 근대화에 대한 태도

IV. 근대화와 의식구조의 변화

V. 농촌 사회문화구조의 변화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2. 사회문화구조의 변화

맺는 말

참고문헌

## 머리말—근대화의 개념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대화, 공업화, 도시화라는 개념은 기능적 상관성(機能的相關性)이 있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 사회구조나 집단의 후진성을 탈피하려는 노력, 곧 생산과정의 합리화나 조직화 등은 근대화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변수로서 나타난다.

근대화라는 개념은 시대성(時代性), 역사성(歷史性)을 갖는 변동개념(變動概念)이다. Lerner에 따르면 근대성(modernity)에는, (1) 생산과 소비가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자립적, 지속적 성장으로서의 경제적 근대성, (2) 정책의 결정과 선택에서 대중참여가 가능하

i) 이 연구는 아산문화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ii) 각 교수님의 전공분야는 김기형: 黨業工學, 유도진: 社會學, 황문수: 哲學임.

도록 민주적 대표제를 성취한 정치적 근대성, (3) 합리적 규범이 사회전체에 확대되어 있는 문화적 근대성, (4)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이동이 가능하고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는 사회적 근대성, (5) 사회적, 질서 속에서 개인이 능률적으로 기능하자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전형적 퍼스낼리티를 갖는 퍼스낼리티의 근대성 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sup>1)</sup>

결국 근대화는 물질적 또는 기술적인 수단의 양적(量的) 증가현상으로서 넓은 의미로는 공업화, 좁은 의미로는 기계화를 의미할 뿐 아니라, 기계화와 관련되어 인간의 정신적 심리적인 인격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근대화를 염두에 두고 현대사회의 특징을 본다면, 물질적 및 기술적 수단의 증가, 고도의 도시화, 교육기회의 확대, 1인당 소득의 증가, 지리적 및 사회적인 인구이동, 공업화와 산업화, 대중매체의 확대, 사회 및 경제과정에서의 시민의 높은 참여도 등을 들 수 있다.<sup>2)</sup>

그런데 근대화에서 가장 현저한 현상, 특히 한국의 근대화를 고려할 때 가장 현저한 현상은 공업화이다. 공업화는 근대 과학기술의 도입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근대화란 근대 과학기술의 지식이나 hardware가 사회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농후하게 함유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근대화된 사회와 근대화 이전의 사회를 구별하는 기준을 근대 과학기술을 내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둘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근대화에서 공업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우선 공업화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공업화를 “농업생산을 위주로 하는 사회가 공업생산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공업화가 어떠한 이유에서 사회변동을 촉진하는가를 살피기로 한다.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1) 18세기부터 서구에서 볼 수 있었던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이동, (2) 도시화, (3) 국가체제나 산업체제의 관료주의화, (4) 사회급여나 경제성에 근거를 둔 가치의 체계화 등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1) 확대가족이나 친족조직의 기능약화, (2) 가족해체빈도의 증가, (3) 생산단위로서의 가족기능으로부터 소비단위기능으로의 전환, (4) 공식적 사회조직의 발달과 사회통제의 강화, (5) 사회참여도의 저하와 소외현상의 증대, (6) 문자해독능력과 기술적 능력의 양성과 이용, (7)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전통문화의 파괴, (8) 이익집단과 결

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78, p.573.

2) Zapf Wolfgang, Theorien des sozialen Wandels, Neue Wissenschaftliche Bibliothek 31, Soziologie, 3 Auflage. Kohn-Berlin, 1921, p. 22.

사체(結社體)의 증가, (9) 합리성의 제도화<sup>3)</sup>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업화의 특성이 어느 문화권에서나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공업화는 그 나라의 문화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그 사회의 변화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업화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화도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과정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통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서구의 그것이 차이를 갖는 한, 한국의 근대화가 곧 서구화일 수는 없다. 김경동(金璟東) 교수는 근대화가 곧 서구화라는 생각은 서구학자들의 자기민족중심의 착각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에서 말한 Lerner의 근대성 개념을 반박하고, 근대화를 “서양의 근대라는 시대가 시작된 이래, 최초의 국제적인 문화이동과 그에 따른 변동의 토착화라는, 두 가지 상관된 역사적 과정이 근대화”<sup>4)</sup>라고 정의한다.

한국 공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연구하려는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갖는 공업화 또는 근대화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전개과정을 거쳤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의 전통사회가 어떤 상태로 근대화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근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식인과 대학생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끝으로 한 농촌사회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원래 한국 근대화의 전 과정을 그 대상으로 했던 것이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 시기를 1960년대 이후로 국한시켰으므로, 사실은 시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해둔다.

## I. 한국의 전통사회적 배경

한국의 전통사회의 사회문화적 구조를 정치적 지배제도와 경제제도, 그리고 교육제도로 크게 나누어서 그 구조적 상호관계를 고찰하려고 한다.

우리 전통사회의 계층구조는, (1) 양반, (2) 중인, (3) 상인(常人), (4) 천민의 네 집단으로 구분된다. 양반은 지배계급이었고, 중인은 지배계급에게 봉사하는 전문가, 상인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商人) 등이었고, 천민은 종이나 백정, 점장이 등이었다.

3) W.E. Moore, *Social Change*, Prentice Hall Inc., 1963, 김일철역, 사회변동론, 서울, 탐구당, pp.126-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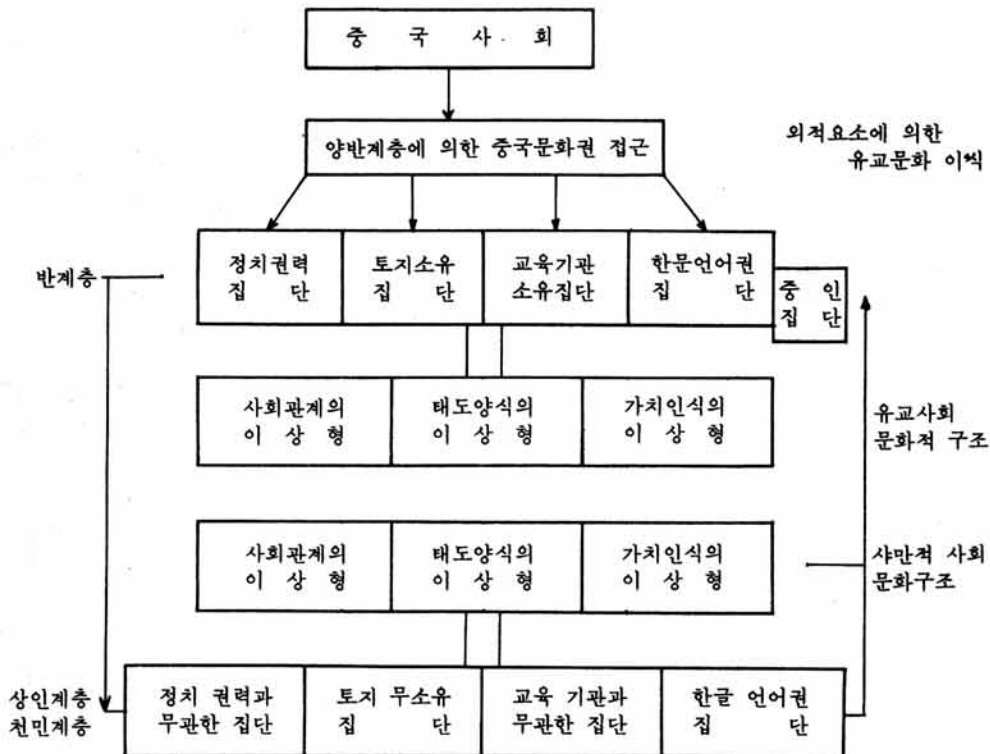
4) 김경동, 전제서, p.573.

정치적 지배계층은 왕가(王家), 관리, 군사지도자(군인), 학자, 전문가 등이었으며, 이들은 유교문화의 영향을 직접 받았던 계층이다. 정치적 지배계도는 중앙집권적이었다.

한국 전통사회의 경제는 농경경제였거니와, 그 경제구조를 보면, 왕은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의 소유권을 장악하고, 토지의 소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관료의 경우에는 토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들이 관직에 있는 한, 토지사용권을 갖고 있었고, 군인도 관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조세(租稅)의 혜택을 받던 계층은 전문가나 지방관리들이었으며, 농민은 대부분이 토지소유권과는 관계없는 소작농이었다. 상공계층은 그들의 경제행위에 의해 생활했고, 토지소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sup>8)</sup>

한국 전통사회구조의 체계와 문화적 배경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이 도

〈표 1〉



5) Soh Ki Ho, Problem des sozialen Wandels von 1945-1972, Press 1972.

표를 보면, 전통적 한국사회구조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분화현상(二分化現象)을 보이고 있다.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지배계층의 사회적 가치관은 유교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 가치관은 전체사회가 따라야 할 이념형(理念型)이었다. 그러나 피지계층은 대부분 샤머니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선조 초기에 양반계층이 그들의 지배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택한 유교문화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었다. 유교문화에 의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과 참여할 수 없는 계층이 분리되었던 것이다.

양반계층이 지배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는 양반에 의한 지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있었다. 교육의 기회는 양반에게만 주어졌고, 상인이나 천민에게는 전혀 없었다.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한 인재등용이나 권력분배의 구조가 제도화되어 양반 이외의 계층이 권력에 참여하는 것을 현저하게 봉쇄하는 폐쇄적 사회구조가 생긴 것이다. 한편 천민이나 상인은 양반과는 달라서, 가족이나 친지는 물론 이웃까지도 포함하는 “계”나 “곳”을 통해 공동생활형태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전통사회는 외적 또는 내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를 들 수 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 말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던 인구는 20세기 초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했다. 1660년경 2백 3십만—5백만이던 인구가 1911년에는 약 2배인 1천 3백 8십만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sup>6)</sup> 33년후인 1944년에는 그 수가 배로 증가하여 2천 5백 1십만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 한 예를 양반계층의 증가추세에서 보면, 대구의 경우, 1960년대에 8.3%가 양반이었으나, 1789년에는 34.7%가 양반이었다.<sup>7)</sup> 일반적으로 19세기 말까지는 양반계층이 증가된 것이다.

양반계층의 증가는 자연히 양반 이외의 계층을 감소시켰다. 대구의 경우, 1690년에는 주민의 51.1%가 상민, 40.6%가 천민이었으나, 1858년에는 상민은 32.8%로 천민은 1.7%로 줄어들었다.<sup>8)</sup>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비율도 변화를 일으켜서, 1920년대에 96.6%였던 농촌인구는 20년 후인 1940년에는 89.4%로 줄어들고, 이러한 농촌인구의 변화는 1945년 이후로 더욱

6) Han Woo-Keun, *The History of Korea*, pp. 309 ff.

7) Henderson Gregory, *Industrialization and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p. 646.

8) *op. cit.*, p.312. 서기호, 전계서, p.646.

가속되었다.<sup>9)</sup>

전통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외적 요인으로서의 외래문화와의 접촉을 들 수 있다. 특히 1890년 이후의 적극적인 문화이식기에 전통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양반계층은 점차로 그들의 사회적 특권을 잃게 되고, 그대신에 양반계급에 종속되어 있던 중인계층은 일본 식민지시대에도 그대로 관료로 남게 되어, 사회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양반계급이 그 특권을 상실하고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외래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생활태도와 사고방식에 변화를 일으켰다. 특히 서양식 교육(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이 준 영향은 매우 커서, 이것은 서양 자본주의와의 접촉으로 나타난 중요한 단면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다.

서양 자본주의의 전파는 순수한 기술만의 전래가 아니라, 서양인의 종교활동, 경제활동, 그리고 정치활동의 전파가 병행되었다.<sup>10)</sup>

한국 전통사회가 경제적인 면에서 서양기술과 접촉하게 되는 것은, 산업혁명 이후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기업가들이 아시아에서 상품시장을 개척하고 원료와 이권을 강탈하는 시기였다. 그러나 서양기술과의 접촉은 한국의 근대화를 자극하게 되었고, 이러한 근대화의 추진은 교통수단(특히 철도)의 증가, 교육의 개방, 외국과의 활발한 통상관계, 산업기술의 개발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개혁을 일으켰다. 이러한 근대화 활동 주체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하면, 그 하나는 “영리주의(營利主義)와 이윤동기(利潤動機)에서 서가 아니라, 민족주의나 개화(開化) 인텔리의 사명의식과 같은 비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고, 이들은 “일본자본에 대항적이었던 것은 물론이나, 신분적으로 구양 반층에 속하고 있었고, 정치권력에 비교적 가까운 편이었다.” 또 하나는 “전래적으로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로서, 이윤동기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기계를 도입해 오는, 보다 경제적인 유형”이 있었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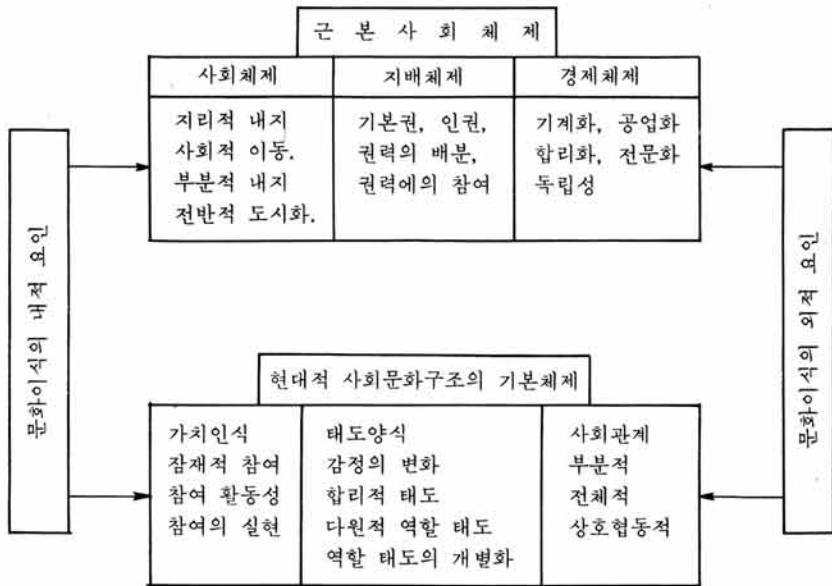
고유한 문화의 발전을 시도하며 전통을 유지해 오던 조선조의 사회구조와 경제구조, 그리고 지배체제 등 문화는 외래문화와 접촉하면서 외적문화전래(Exogene Akkulturation) 요인과 내적문화요인(Endogene Akkulturation)에 의해 급변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과정

9) Henderson Gregory, 전계서, p.312. 서기호, 전계서, p.647.

10) William Woodruff, *Impact of Western Man. A Study of Europe's Role in the World Economy 1950-1960*, N.Y., St. Martin's Press, 1966.

11) 조기준, 한국자본주의성립사연구, 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총서. 김영호, 한반도서양기술의 수용, p.340.

〈표 2〉



을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 2)

이러한 근대화는 1910년 한일합방 이전까지는 한국인이 주도했다. 그러나 한일합방 이후에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그 자주적 형태를 상실하고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피동적으로 진척되었다.

한국 근대화의 단계를 크게 나누어 보면, (1) 서양 중상주의(重商主義)의 아시아 진출을 계기로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서양 산업자본주의와 접촉하면서 근대화를 추진한 단계(17~19세기초), (2) 외적 또는 내적 요구에 따라 개항(開港)을 하고 부국강병책으로 무기, 기술을 받아들여 정책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한 단계(19세기중반~19세기말), (3)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의 피동적인 근대화 단계(20세기초~1945년), (4) 미국의 영향 밑에서 제한된 근대화를 추진한 단계(1945년~1960년), (5) 자주적인 근대화 단계(1960년대~1970년대)의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 연구는 앞선 네 단계의 근대화를 고려하면서 제 5 단계, 곧 자주적인 입장에서 근대화를 추진한 단계에 중점을 둔다.

## II. 근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자주적 입장에서 시작된 1960년대 이전에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농경형(農耕型) 국가로서, 소농과 빈농이 대부분인 저생산성 농가구조(低生産性農家構造)를 갖고 있었다. 매호당 경작면적이 0.8~0.9ha 정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GNP에 대한 농업의 기여도는 1970년을 기준치로 할 때 1960년에는 약 39.9%였으나, 1975년에는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그 기여도는 19.2%로 떨어졌다. 이것은 농촌인구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어느 사회에서나 근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농업인구의 이농현상과 영농의 기계화, 그리고 농가계층구조의 변화이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농지개혁 이후로 농가계층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시작된 이농현상은 1960년대에 본격화된 근대화 시책이 시행되면서부터 급격히 촉진되었다.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의 적극화로 농촌의 변화는 더욱 가속성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인구변동의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는 1960년에는 농촌·도시 인구비율이 72 : 28이었으나, 1970년에는 43 : 57로 바뀌었다. (1969년은 농가인구와 비농가인구가 같아지는 해였다) 1980년대에는 도시인구가 더욱 늘어났고, 1990년대에는 농가인구는 약 20%도 안 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의 젊은이들은 도시로 나가 공업노동력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농촌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일어나서 농업의 과학화, 농업의 기계화가 과제로 대두되었다.

1972년부터 근대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전통적인 농촌사회의 탈농업화(脫農業化) 내지 도시화를 촉진하고 있다.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만든 교통망의 정비와 라디오, TV, 신문 등의 보급은 도시와 농촌의 물리적 거리를 단축시켰을 뿐 아니라, 농민의 의식의 도시화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농촌사회는 신문화형성과정(Neokulturationsprozess)에 돌입했고, 지금 농촌은 전통문화도, 새마을문화도, 또한 대중문화의 형태도 아닌 문화변혁과정을 겪고 있다.

농경문화로부터 공업문화로 옮겨간다는 것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농토에서 공장으로 이동하고, 대가족제도로부터 핵가족으로 변화하고, 농업기술에서 과학기술로 전환하고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박한 시골의식, 예전대 모내기 등을 같이하는 공동의식은 공장의 기계 속에서, 또는 큰 사무실의 일부에서 분업의 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의식으로 변하는 것이다. 조방농법(粗放農法)의 최저 기능이 정밀성을 요구하는 고급과학기술로 비약하고, 목가적인 농



촌분위기가 1분 1초를 다투는 공장과 사무실의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 나이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잘 적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사회가 전통적인 농경사회로부터 과학기술이 주축을 이루는 공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대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급속히 핵가족화 현상이 일어났고, 농촌인구는 급속히 감소하여 도시인구가 70%선을 넘게 되었으며, 농촌에서는 감소하는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농촌기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은 공업화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서 제 1차 및 제 2차 경제개발계획 수행의 원동력적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의 경공업 발전에 기여했으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촌인구가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생활에 적응력이 없으면서도 변화된 대도시를 동경하여 무작정 도시로 몰리는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은 공업화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도시 주변에 빈민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인구집중의 가장 좋은 예는 수도 서울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인 1949년의 서울인구는 전국 인구의 7.1%였으나, 1975년에는 전국 인구의 20% (690만명), 1980년에는 22.3% (836만 6천명)로 늘어나서 평방킬로미터당 1만 3천 7백여명이라는 과밀도시로 변모했다. 부산의 경우에는 그 인구가 1949년에는 전국 인구의 2.4%였으나, 1975년에는 7.5%, 1980년에는 8.4%로 그 비중이 증대하여,<sup>12)</sup> 인구분포의 대도시편중화 현상은 선진국의 공업화과정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르는 노동력 부족으로 농촌의 기계화가 촉진되었고, 소나 쟁기, 호미 등을 사용하던 전통적 농경방식이 트랙터, 경운기, 농약살포기, 제초기 등을 사용하는 기계화된 농경법으로 바뀌면서 농촌주민들도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그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가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5~1976년 사이에 ha당 0.17HP에서 0.88HP로 증가한 것으로도 추측할 수 있다.

농촌이 근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는 또 하나의 예는 TV세트의 보급과 그 시청율 및 시청시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4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TV시청율이 84.3%, 주간(週間) TV시청시간이 16시간이나 된다는 사실은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의 격차를 제거하고 국민문화의 획일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동시에 홍보정책이 잘못될 경우에는 큰 해독을 끼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어 있으므로, 매스미디어에 대한 수준높은 국

12)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Average Size of Farm Machinery per Farm-Household and Per Hectare

Year	H.P. per Farm Household	H.P. per Hectare of Arable Land
1965	0.18	0.17
1970	0.32	0.38
1976	0.85	0.88

\* Includes power tillers, tractors, sprayers and prime motors.

〈표 4〉 시청율 및 시청시간(14세이상 인구)

지역·성별	TV 시청율(%)			주간 TV 시청시간		
	1977	1979	1980	1977	1979	1980
전 국	54.4	83.0	84.3	14.3	15.0	16.0
남	53.9	81.3	83.3	12.1	13.2	14.1
녀	54.8	84.0	85.2	15.8	16.7	17.6
시 부	62.9	85.1	85.9	15.2	15.7	15.9
남	60.9	83.2	84.0	11.8	13.2	13.6
녀	64.8	86.0	87.6	17.3	17.0	17.9
군 부	45.6	80.6	82.4	13.4	14.3	16.0
남	46.8	80.5	82.4	11.9	13.2	14.8
녀	44.4	80.8	82.4	14.1	16.2	17.2
년 령 별	TV 시청율(%)			주간 TV 시청시간		
	1977	1979	1980	1977	1979	1980
14-19 세	54.4	83.0	84.3	14.2	15.0	16.0
20-24	57.6	82.9	82.9	11.6	12.8	14.0
25-29	55.3	84.1	84.8	13.8	15.4	16.0
30-34	61.7	88.1	89.1	14.6	16.6	17.5
35-39	60.8	88.6	89.7	14.7	16.1	17.0
40-44	58.3	86.1	89.2	14.8	15.7	16.2
45-49	53.9	84.1	87.7	14.4	15.2	15.7
50-54	51.0	83.8	85.7	14.1	15.1	15.8
55-59	46.9	81.5	84.6	14.6	15.2	16.0
60-64	46.1	80.5	82.1	14.8	15.3	16.2
65+	42.6	76.3	76.9	15.1	15.6	16.3
	33.7	63.9	62.1	15.4	14.3	15.3

〈표 5〉 농가의 계층구성<sup>15)</sup>

年度	0.5町步未滿		0.5~1.0町步		1.0~2.0町步		2.0~3.0町步		3町步以上		合 計
	戶 數	比率	戶 數	比率	戶 數	比率	戶 數	比率	戶 數	比率	
1947	894,775	42.2	724,167	33.3	409,204	18.8	113,194	5.3	31,065	1.4	2,172,439
1953	911,032	44.9	768,600	34.2	370,848	16.5	95,722	4.3	2,930	0.1	2,249,132
1956	942,190	42.8	676,108	30.7	448,981	20.4	125,113	5.7	8,157	0.4	2,200,549
1961	646,689	40.7	740,999	31.8	490,688	21.1	142,680	6.1	6,050	0.3	2,327,116
1962	1,013,335	41.0	803,162	32.5	505,093	20.5	140,598	5.7	7,265	0.3	2,469,453
1963	1,009,238	41.8	761,015	31.5	497,398	20.6	138,999	5.7	8,943	0.4	2,415,593
1964	978,787	39.9	792,499	31.9	525,672	21.5	147,835	6.1	15,515	0.6	2,450,308
1965	900,810	35.0	793,864	32.0	643,305	26.0	139,596	6.0	29,291	1.0	2,509,879
1966	893,885	35.1	818,121	32.2	656,957	25.9	136,713	5.4	34,598	1.4	2,540,274
1967	919,000	35.5	829,000	32.0	665,000	25.7	135,000	5.2	39,000	1.6	2,587,000
1968	858,000	34.0	820,000	32.2	669,000	26.5	133,000	5.3	41,000	1.6	2,521,000
1969	842,000	33.5	807,000	32.4	668,000	26.9	130,000	5.2	39,000	1.6	2,487,000
1970	806,000	32.2	796,000	32.8	658,000	27.1	128,000	5.3	39,000	1.6	2,427,000

민교육적 배려가 필요하게 되었다. 더구나 매스미디어가 도시생활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어서, 농촌은 유행 등 여러가지 면에서 거의 도시와 다름없는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농가계층의 구조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업인 농업규모의 크기에 따라 구성된다. 농지규모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계층구조를 보면, 소영농가는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중농층은 증가추세이나, 대농은 별로 변화가 없다. (표5 참조)

경작면적을 중심으로 농가계층을 살펴볼 때, 1,500평(5 단보) 미만의 농가, 곧 영세농가층은 1947년에 42.7%였으나, 1961년에는 40.7%, 그리고 1970년에는 32.2%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3,000평이상 6,000평(1 정보~2 정보)의 중농층은 현저하지는 않지만, 약

13) Kim Dong-Hi, Issues and Strategies for Agricultural Groth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II, No. I, April 1979, p. 17.

14)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조사.

15)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54년. 한국은행, 경제연감, 1949년. 농협조사부, 농업연감, 1957-1971년.

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6,000명이상의 농가는 변동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농가의 현황을 고려할 때, 빈농층의 변화는 어느 계층보다도 심각하다. 1960년대 이후의 5개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성장이 성취되면서 농업과 공업의 격차가 커졌고, 산업체에 의해 빈농층 인구의 일부가 흡수되고, 그 일부는 현지의 임금농업인구로 전락한 것이다.

1980년의 농촌사회의 영농현황을 보면, 빈농과 중농과 대농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농업협동조합의 영농자금은 농촌의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가호당 약 50만원이 방출되고 있지만, 빈농가의 경우는 이 자금의 상환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것이다. 그 이유는, (1) 이농에 따른 농촌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영농인건비 지출의 증대, (2) 비료값, 농약대 등의 지출부담, (3) 영농비는 증가하지만 농산물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적자 영농상태의 계속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빈농층의 분해현상(分解現象)은 경제성장도가 높을수록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농촌에서도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농촌의 도시적 성향이 증대되어, 농촌경제는 현금경제(現金經濟)로 변하고, 농촌은 Gemeinschaft로부터 Gesellschaft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농업주도형에서 경공업주도형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주도형으로 그 구조를 전환하는 동안에 계층별 소득분포에서는 중간층의 비중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1977년 10월에 조사한 “전국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6.6%가 자기 생활수준을 중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산업국가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신중단계급의 등장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sup>16)</sup>

또한 공장, 학교, 교회, 사원 등이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에 보조를 맞추어 증대하고 국내외적 교역이 활발해지고 정부 및 사기업의 활동이 비약적으로 증대함에 따라, 전통적 농업사회에는 없었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가 탄생하여 관리세력(管理勢力)으로서 그 힘을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력 개발계획만 보더라도 과학자, 기능자(機能者)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거니와, 이러한 인력을 통제하고 근대화 기구 속에서의 기술관리를 위해서는 국가의 각 기관과 민간의 각 조직에서 테크노크라트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테크노크라트의 등장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고, 우리사회가 근대화된 고도산업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역할도 더욱 현저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sup>17)</sup> 테크노크라트는 중간층 형성에서 그 핵이 되고 있다.

16) 김경동, 현대사회와 중간계층, 사회연구 제2집,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79, pp.1-37.

17) Kim, Kee-Hyong A proposal of Neotechnocracy, The Reconstruction of Human Society, Vol. I, No. I, (1977).

그러나 농업사회로부터 공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조적이 겉과 속이 다른 혼합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곧 외형적 구조는 대체로 합리적인 듯하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하여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그 좋은 예이다. 20년 동안에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체에서 그 경영 또는 관리층이 대부분 친척, 인척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유와 관리가 분리되지 않았으며, 인사관리에서는 연고주의, 정실주의가 뿌리깊게 남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잔재라고 할 수 있으나, 테크노크라트의 활동영역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합리성의 제거는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이고 근대과학기술을 다량 흡수한 결과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생산력의 급속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의 1인당 소비량의 급증은 표 6 과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6〉 주요 공산품의 1인당 생산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정유	비료 (성분)	지류	면계	합섬계
	kwh	kg			L	M/T	kg		
1967	166	421	15.9	82.6	92	0.04	6.30	2.75	0.28
1968	200	340	24.6	112.5	184	0.35	7.66	2.84	0.55
1969	251	338	32.9	157.1	284	0.40	9.14	3.01	1.09
1970	293	396	40.8	186.0	387	0.41	10.48	3.22	1.70
1971	331	402	45.9	215.99	407	0.40	12.38	3.47	2.35
1972	366	386	57.4	200.4	422	0.41	13.69	3.42	3.01
1973	451	412	75.0	248.6	493	0.43	16.32	4.10	3.71
1974	503	454	96.9	264.4	499	0.47	18.74	4.58	5.02
1975	562	499	83.2	310.6	523	0.02	18.74	5.24	7.98
1976	645	466	108.3	356.2	587	0.02	25.29	6.81	9.51
1977	729	474	116.5	395.7	659	0.03	30.9	7.65	10.51
1978	842	486	134	417.8	704	0.038	35.6	9.02	12.45
1979	948	484	202.4	441.9	699	0.038	41.0	10.01	13.64
1980 <sup>1)</sup>	1077	479	238.9	447.4	777	0.038	47.8	10.94	14.50

자료: 상 공 부

주: 1. 계획치

〈표 7〉 수요 공산품의 소비

	전력	석탄	철강	시멘트	정유	비료 (성분)	지류	천연 섬유	인조 섬유
	kwh	kg			L	M/T		kg	
1967	132	415	28.0	93.6	136	0.17	0.87	2.7	1.1
1968	161	332	37.0	111.7	198	0.16	8.75	2.75	1.45
1969	207	322	48.4	139.5	268	0.18	9.92	2.70	1.70
1970	247	385	52.5	170.3	340	0.18	11.34	2.70	1.80
1971	279	391	59.2	191.7	393	0.19	13.70	2.65	2.35
1972	309	379	55.6	175.3	423	0.20	14.65	2.30	2.6
1973	376	406	87.0	218.3	498	0.24	16.50	2.60	2.7
1974	420	447	96.5	228.8	497	0.25	17.64	3.30	2.43
1975	471	450	99.5	244.5	522	0.03	17.87	3.38	2.82
1976	641	468	130.6	281.8	608	0.02	23.5	3.69	3.57
1977	729	474	141.8	305.1	659	0.02	29.0	3.78	4.50
1978	851	485	176.9	403.0	717	0.02	34.0	3.88	4.90
1979	948	549	172.9	420.8	798	0.02	39.8	4.12	4.98
1980 <sup>1)</sup>	—	567	191.8	364.7	—	0.03	—	4.27	5.41

자료: 상 공 부

주: 1. 계획치

국민 문화수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종이류 소비만 보아도, 지난 20년 동안에 10배 이상 증가했고, 시멘트도 12배, 철강은 약 20배가 늘어난 사실만 보아도 우리나라국민의 문화생활구조가 후진국형에서 선진국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인당 소비량의 증가율은 크지만, 소비절대량은 선진국 수준과는 아직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별 취업자를 보아도 건설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는 대학졸업자가 지난 10년 동안에 2 배 내지 3 배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sup>18)</sup> 이들이 신중간계층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지지하는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18) 문교부, 문교통계연감, 1980년도판을 참고 할 것.

현대문명은 도시화(都市化)문화, 또는 기계문명, 또는 과학기술문명이라고 불린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최대생산-최대소비-최대이윤을 추구하는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메카니즘 속에서는 대중문화의 보급도 신속하고 광범하여,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에서도 대중문화를 향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고도로 이용하는 현대고도산업사회는 그 어두운 측면 때문에 무제한 개발주의와 제한개발주의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일으키게 했다.<sup>19)</sup>

사실상 현대 선진공업국가의 특징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면서도 정신적으로는 가난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근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제기되고 있다. 전통적문화와 제도, 가치관 등이 무너지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와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해서 정신적 불안이 증만하고 대중문화의 홍수 속에서 자기를 상실하고 이성이 마비되어, 정치적 무관심과 사회적, 도덕적 무질서(Anomie)에 빠져서 인간소외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 이어 의식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할 차례를 맞이했다.

그러나 의식구조의 변화에 대한 고찰에 앞서서 우리의 사회와 의식에 변화를 일으킨 근대화에 대한 국민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먼저 보고자 한다. 우리의 의식구조의 변화에서 근대화에 대한 태도가 한 요인으로서 작용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Ⅲ. 근대화에 대한 태도

우리나라에서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된 것은, 앞에서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단계를 나눌 때에 제 5 단계의 시발점으로 삼은 1960년대의 초반이다.

그러나 근대화, 특히 경제발전의 문제는 그 이전에도 국가적 과제였고, 특히 6·25전란이라는 참혹한 전화를 겪어서 폐허화한 산업의 재건을 위해 당시의 정부와 국민이 노력을 경주했던 것도 사실이다. 제 1공화국, 그리고 단명한 비극적 제 2공화국의 시기에도 경제부흥 또는 경제건설은 정부의 중요한 시책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경제적인 악조건과 부정부패, 정쟁 등으로 말미암아 현저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한국 근대화를 주도한 것은 5·16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장악한 정치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군사정권, 그리고 그후의 제 3 및 제 4 공화국을 통해 조국근대화를 정치적 목표로

---

19) V. Kerry Smith (ed.), *Scarcity and Growth Reconsidere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79. 특히 p. 73 참조.

삼고 지속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사회적 변화도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적어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의 과제였던 근대화라는 과제—이것은 국민이 열망하는 것이기도 했다—에 본격적으로 도전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조국근대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내세웠을 때, 경제발전은 국민적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물론 아직 근대화를 추진할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에서 근대화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근대화에 대해 회의적 내지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 이유에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갖게 되었다.

제 3 및 제 4 공화국을 통해 근대화는 당시의 정권의 존립과 밀접히 관련된 정치적 명분이었다. 정치적 이유에서 근대화에 회의적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근대화가 한 정권의 정치적 명분, 또는 정권 존립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당시의 정권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파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곧 근대화라는 민족적, 국가적 과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공업화 위주의 근대화 정책에 대해 관리층, 공무원, 교수, 언론인 대학생 등은 일반적인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보고, 또한 공업발전 위주의 경제발전정책에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면서도 정부의 공업화 주도에 대해서는 소극적 지지를 보이고, 정부지도자에 대한 신뢰도 희박했던 것이다.<sup>20)</sup>

공업화에 적극 찬성하고 그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정부 주도가 불가피한 여건 아래서, 정부 주도에 찬성하지 않은 것은 바로 근대화가 한 정권의 정치적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더라도, 철저한 계획 경제 체제의 강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sup>21)</sup> 대학생 집단은 정부 주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대학생의 이러한 태도는 얼핏 보기에는 자기모순인 듯하지만, 근대화가 한 정권의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사의 강력한 표시로 해석한다면, 자기 모순에 빠진 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전통적으로 관료지향적인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은 정부기업체보다는 개인기업체에 들어가기를 바랄만큼 정부에 대해 불

20) 김경동, 공업발전을 위한 “준비태세”, 행정논총 5 권, 서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7, p.199. (그 수치를 대해서는 “표 8”을 참조할 것. 김경동의 논문에서 앞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같음). 홍승직, 지식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삼영사, 1972, p. 53.

21) 권오훈, 근대화를 향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정경연구 1967년 4월호, p.175. 철저한 계획경제체제의 강화에 72%가 찬성하고 있다.



신감을 나타내고 있다.<sup>22)</sup>

국가귀속의식을 보더라도, 공무원 관리자는 행동적 유효성을 가진 귀속의식을 갖고 있으나, 노동자의 경우에는 귀속의식이 희박하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약간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관념적이어서 행동적 유효성이 높지 못하다.<sup>23)</sup>

국가와 정부는 엄연하게 구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국가귀속의식이 희박하거나 관념적인 것은, 그들이 국가와 정부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범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그만큼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신념있는 지도자에 대한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태도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회의적이고, 특히 노동자는 그러한 지도자를 원하지 않고 있다.<sup>24)</sup>

특히 교수, 언론인의 경우에는 근대화과정에서 정치와 경제의 유착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근대화의 성과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특수층에 독점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들은 근대화의 혜택을 “재벌 및 기업가,” “집권층,” “상류층” 또는 “도시인”이 주로 받게 되어서, 빈부의 차이가 더욱 커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sup>25)</sup> 그러므로 지식인들은 “부의 편중”과 부정부패에 대한 긴급한 통제를 요구했다.<sup>26)</sup>

근대화 과정에서 외국문화의 수용으로 인한 전통의 와해에 대해서도 교수, 언론인, 관리자, 공무원, 대학생, 노동자 등이 모두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어서,<sup>27)</sup> 그들의 근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다만 대학생들이 전통문화의 보존에 큰 관심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대학생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때문이다. 당시 정부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대학생은 물론 그 밖의 계층으로부터도 근대화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터이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28)</sup>

상당한 계층에서, 특히 지식인과 대학생들이 근대화를 탈후진국(脫後進國)의 유일한 방

22) 권오훈, 전계서, p.176. 개인기업체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이 69%이다.

23) 김경동, 전계서, p.187.

24) 김경동, 전계서, p.188.

25) 홍승직, 전계서, pp.52-53. 교수와 언론인들은 재벌 및 대기업가가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교수 48.88%, 언론인 53.84%). 그러나 “집권층,” “상류층” 또는 “도시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

26) 홍승직, 전계서, p.96.

27) 김경동, 전계서, p.199. 홍승직, 전계서, p.145.

28) 권오훈, 전계서, p.177. 대학생은 민족주의에 대해 85%가 긍정하고 있다.

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주도라는 이유만으로 근대화에 대해 회의 또는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은 그 동안의 근대화 과정에서 정부의 무리와 독주의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부의 편중으로 인한 서민의 불만을 증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화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근대화를 통한 의식구조의 변화에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sup>29)</sup>

〈표 8〉<sup>29)</sup>

態 度 內 容	集 團									
	公 務 員		管 理 者		勞 動 者			大 學 生		
國家的歸屬意識	OV (77)		OV (71)		OV LB (44) (36)		OV LB CV (50) (23) (20)			
信念에서 움직이는 指 導 者 觀	OV LB (38) (30)		OV AV (40) (38)		LB AV OV (42) (32) (23)		OV OV AV (39) (36)			
工業發展을 위한 個人 희생 요구	OV LB (48) (23)		LB OV (40) (31)		OV LB (50) (25)		OV AV (41) (22)			
基幹産業의 國有國營	OV AV LB (43) (24) (20)		LB AV OV (36) (31) (22)		OV OV CV (42) (23)		OV VA (51) (22)			
私企業에 대한 政府 補 助	OV (86)		OV CV (60) (36)		OV CV (57) (33)		OV CV (52) (37)			
政 經 分 離 外 交	LB (75)		LB CV (60) (31)		LB CV OV (45) (21) (20)		OV CV LB (48) (31)			
工業發展對社會福祉	OV (88)		OV LB (82) (26)		OV LB (56) (21)		OV (66)			
工 業 對 農 業	OV (77)		OV (73)		OV (60)		OV (61)			
外 國 文 物 輸 入	OV (58)		OV (84)		OV (69)		OV (70)			
傳 統 의 케 기	OV LB (35) (32)		OV LB (45) (31)		OV LB (44) (34)		LB LB CV (33) (27) (22)			

\* 괄호 안은 %임.

\*\* OV- operative values, AV- adopted values, CV- conceived values,

(유효 가치관)

(채용 가치관)

(판념적 가치관)

LB-행동유관성이 낮은 가치관의 약자.

29) 김경동, 전계서, p.197.

#### IV. 근대화와 의식구조의 변화

근대화에 의한 한국인의 의식구조의 변화를 보기 전에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장영식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의식구조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곧 (1) 한국민족은 농촌에서 집단을 위주로 생활해 왔으므로, 집단의식이 강하고, (2) 동족의식, 족벌의식이 농후하고, (3) 유교, 특히 주자학(朱子學)에서 비롯된 권위의식이 높고, (4) 체통과 체면의식이 강하다는 것이다.<sup>30)</sup>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로 말미암아 거듭된 강력한 외적의 침략을 견디어 온 잡초와 같은 강력한 생존의식과, 본심이나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은폐의식을 추가해서 지적하고 싶다. 한국인은 가능한한, 자신의 본심을 숨기려는 의식이 강해서 대화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애매하거나 또는 공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은폐의식은 지정학적 불안정, 또는 오랜 당쟁(黨爭)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살며 터득한 지혜로서 발생한 의식일 것이다. 또한 예절을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겸손하고 자만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은폐의식의 또 하나의 근원일 것이다.

조선조 말기에 서구문명이 밀물처럼 들어오기 이전까지 한국인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교문화였으며, 오늘날도 이 유산은 한국인의 의식의 밑바탕에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서구문명의 수용과 함께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변화하기 시작했고, 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그 성과로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한국인의 의식구조도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후진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공업화가 사회구조를 크게 바꾸어놓고 동시에 사회의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의 방대한 과학기술은 인간사회로 하여금 물질적 풍요와 파괴력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인간의 사고방식과 행위까지도 합리적, 객관적, 과학적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한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또는 과학과 인간성 사이에는 큰 균열이 생겼고, 인간은 과학기술의 폭주로 말미암아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sup>31)</sup>을 느끼게 되었다.

30) 장영식, *The Urban Koreans as Individual*, 전경련(全經聯) 1980년 11월호, p.18-20.

31) Yoo, Do-Jin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cal Revolution, 21st Century—Prospects and Problems* (ed. by Kee-Hyong Kim), Kyunghye University Press, 1980, pp. 266-273.

한국의 근대화 과정과 도시화 과정에서 일어난 의식구조의 변화도 놀랄만한 것이었다. 근대화는 전통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고, 전통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위해서는 합리성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rationality)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과학적 합리성이 거의 무시되고, 노동과 기능이 천시된 것이 사실이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노동과 기능을 중요하게 여기고 합리성과 과학성을 적어도 표면상으로나마 존중하는 경향이 현저해졌다. 그러나 몇백년 동안 이어져온 민족의 전통이 불과 20년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의 수준과 같은 합리적, 과학적 행동수준까지 전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며, 너무나 급격한 전환은 예상외의 반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사회의 씨족 지향적(氏族志向的)이고 권위 지향적인 대가족주의가 무너지고 개인주의적인 시민사회로 전환하고 있다.<sup>32)</sup> 김경동교수도 염려하고 있는 일이지만, 가족지향적 권위주의가 크게 동요되고 그러면서도 근대시민사회의 개인주의적 자아도 미처 확립되기 전에 물질기제문명에 중독된 결격개인주의(缺格個人主義)가 유행하게 되어서, 자유와 방종을 혼동하고 자유란 책임과 양식(良識) 속에서만 자라난다는 공리(公理)를 잊은 사회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대도시문제, 가치관의 붕괴, 윤리관의 붕괴 등의 문제가 부각되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는 전자-기계 문명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생산기구의 거대화에 따라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하는 인간소외의 느낌을 갖게 되었다.

대도시의 성원들은 혼잡한 군중 속에서 참된 자기를 상실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상호간의 인격적 유대도 거의 없이 TV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매스 미디어의 매개로 간접적으로 통하는 외로운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사실 현대 공업국가의 특징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나, 정신적으로는 가난을 느끼고, 전통문화의 붕괴와 함께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서 정신적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혼돈의 시대를 초래하였다는 점에 있고, 비록 그 정도에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 과정을 걸어온 한국 사회에도 현대 공업국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의 소득 분배의 불균형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곧 사회적으로 대중의 욕구가 절대빈곤(絶對貧困) 문제로부터 상대빈곤문제로 초점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32) 김경동, 도시화와 의식구조, 신동아 1981년 4월호, 서울, 동아일보사, pp. 90-95.

사회학자들 중에는 GNP가 1,500달러를 넘으면, 대중은 여가를 즐기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시간을 선용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것으로 관심을 전환시키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지적하고 있거니와, 한국에서도 이러한 의식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 1961년에는 GNP가 80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1년에는 1631달러를 돌파했고, 이에 따라 충효사상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유교적인 의식구조는 거의 완전히 해체되고 서구형의 의식구조를 추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구조의 변화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청년층의 의식구조의 변화이다. 청년기에는 일반적으로 가치관의 동요가 따르거니와, 특히 한국과 같이 급격한 근대화 과정에 있는 시기에는 청년들의 가치관의 격심한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한국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표 9와 같거니와, 30세 이하의 인구가 국민의 66.3%나 되고, 65세 이상의 비율이 3.5%(스웨덴은 15.5%, 영국 14.2%, 서독 14.5%, 미국 10.7%)<sup>33)</sup>에 지나지 않아 한국은 청년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청소년의 범죄증가율이 연11%를 넘는 추세에 있다.<sup>34)</sup> 이와 같은 추세는 물질적 풍요와 공업화, 도시화과정을 밟는 선진공업국가들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플러스 효과에 수반되는 마이너스 효과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인구이동에서 농촌청년의 도시로의 이동이 그 중추를 이루고 있다. 농촌청년이 비정한 현금만능주의의 대도시에 나와서 큰 충격을 받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청소년지도의 핵심적 순간이 바로 농촌청소년이 출향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원식 교수는 한국 청년의 심리적 발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국 청년의 도덕적 가치관은 상당한 정도로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청년들의 도덕적 가치관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sup>35)</sup>

홍승직, 강학진, 강희창, 김인자, 황응연 등도 한국청소년의 가치관을 각각 연구한 바 있는데, 그들의 결론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6)</sup>

33) 자료 : UN통계연감.

34) 한국청소년지도편람, 제 4 장 청소년의 의식, pp.131-161, 제 7 장 청소년의 비행, pp.305-397, 서울, 한국청년문화연구소, 1981.

35) 정원식, 한국청년의 심리적 발달 특징, 청년연구 제 1 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 pp.7-28.

36)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강학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 연구(교육연구 p.117, 1970). 강희창,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5). 김인자-황응연, 한국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서강대 사회문제연구소, 1974).

〈표 9〉 연령 계급별 인구

	1960 <sup>1)2)</sup>		1966		1970		1975		1980 <sup>3)</sup>	
	인구 Population	구성비 Ratio	인구 Population	구성비 Ratio	인구 Population	구성비 Ratio	인구 Population	구성비 Ratio	인구 Population	구성비 Ratio
총 계	24 989 241	100.0	29 159 640	100.0	31 435 252	100.0	34 678 972	100.0	37 417 665	100.0
0-4 세	4 448 439	17.8	4 480 521	15.4	4 316 143	13.7	4 227 360	12.2	3 789 742	10.1
5-9	3 449 884	13.8	4 612 872	15.8	4 531 942	14.4	4 453 698	12.8	4 446 219	11.9
10-14	2 832 816	11.3	3 590 027	12.3	4 393 348	14.0	4 527 330	13.1	4 478 162	12.0
15-19	2 369 465	9.5	2 788 146	9.3	3 088 134	9.8	4 146 912	12.0	4 182 708	11.2
20-24	2 183 402	8.7	2 298 683	7.9	2 523 170	8.0	3 123 126	9.0	3 976 021	10.6
25-29	1 831 962	7.3	2 244 334	7.7	2 204 293	7.0	2 507 450	7.2	3 056 127	8.2
30-34	1 491 930	6.0	1 959 774	6.7	2 153 275	7.0	2 224 238	6.4	2 515 652	6.7
35-39	1 407 085	5.6	1 552 795	5.3	1 854 200	5.9	2 189 144	6.3	2 217 007	5.9
40-44	1 138 340	4.6	1 346 826	4.6	1 461 903	4.7	1 800 153	5.2	2 158 904	5.8
45-49	1 011 925	4.0	1 116 535	3.8	1 248 628	4.0	1 398 820	4.0	1 799 071	4.8
50-54	829 172	3.3	947 632	3.2	1 024 535	3.3	1 197 379	3.5	1 340 969	3.6
55-59	635 327	2.5	788 723	2.7	855 041	2.7	939 205	2.7	1 141 476	3.1
60-64	535 991	2.1	550 953	1.9	665 258	2.1	737 552	2.1	829 979	2.2
65-69	377 641	1.5	437 384	1.5	434 715	1.4	542 827	1.6	631 629	1.7
70-74			267 288	0.5	315 444	1.0	325 213	0.9	435 696	1.2
75-79			171 669	0.6	175 416	0.6	204 290	0.6	238 502	0.6
80+	445 862	1.8	84 978	0.3	113 803	0.4	134 269	0.4	179 801	0.5
연령미상			100	0.0	-	-	6	0.0	-	-

주 : 1) 외국인 포함. 2) 세는 나이별 연령구조임. 만세수정인구에 대하여는 1971년 통계연감 참조.

3) 2% 포본추출결계 결과(속보)

자료: 경제기획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범죄와 비행의 증가, 도덕적 타락, 전통문화의 망각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sup>37)</sup> 우리는 그 원인을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의식의 심층에서 그러한 것이고, 감각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의 유행풍조에 영합하고 있는 한국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들의 방황을 멈추게 할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이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선진공업사회의 병폐에 감염되지 않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며, 특히 농촌청년의 경우에 더욱 절박하다. 농촌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면서도 도시문화를 모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근대화에 대해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농촌에서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 볼 차례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를 위해 한 농촌을 표본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V. 농촌 사회문화구조의 변화

###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한국의 근대화가 농촌사회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를 조사하기 위해 대도시에 인접하고 있는 농촌<sup>38)</sup>인 경기도 파주군의 549농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수집은 농민들과의 직접 인터뷰 및 설문지에 의존했다. 자료수집 기간은 1981년 2월10일부터 1981년 3월말까지이며, 농번기를 피하기 위해 이 시기를 선택했다.

자료의 분석은 세밀한 양적 분석이나 고급 통계를 적용한 것이 아니며, 질적(質的) 내지는 이론적 분석, 그리고 수치(數值)의 단순한 대조에 머물렀다.

대도시에 인접한 농촌사회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농촌(대도시에서 거리가 먼 농촌)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도시화라는 근대화의 특징을 대도시인접 농촌사회에서 더 뚜렷이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지인 파주군의 일반적 특성과 549가구의 일반적 구성은 생략하고, 다만 사회문화 구조변화에 대한 조사결과만을 다루고자 한다.

37) 청소년백서(1980) 참조.

38) 지금까지 농촌사회문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전형적인 농촌사회, 즉 도시에서 거리가 먼 곳이 많았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근대화의 영향을 좀더 가까운 곳에서 강하게 받았으리라고 생각되는 서울에 인접된 농촌사회의 근대화 현상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 2. 사회문화구조의 변화

농업위주의 사회로부터 공업위주의 사회로 전향하는 모든 사회가 겪어야 할 과정이 농업의 기계화이며, 소지주의 몰락과 농촌의 소도시화이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지역은 군사분계선에 인접된 지역으로 공장이나 큰 사업체가 많은 곳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전에 북한과 연결되던 철로와 육로(현 통일로)가 있는 곳이고, 원활한 교통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후의 근대화 시책에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아니다. 연구대상 가구의 경지규모를 보더라도, 1.5정보 미만의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다.

〈표10〉 경작 규모

단위 : 마지기 (200평)

없다	10	11-20	21-30	31-40	41-50	51 이상	계
64	179	184	72	29	11	10	549(가구)
11.7	32.6	33.5	13.1	5.3	2.0	1.8	100 (%)

이와 같이 빈약한 경작규모를 가진 대부분의 빈농가는 부업, 또는 자녀들의 생계를 유지한다. 549농가중 경작상황을 보면, 지주 자작농가가 15.3%밖에 안되고, 자작겸 소작<sup>39)</sup>이 34.6%를 차지한다. 더구나 농업임금노동자(품팔이)가 15.5%나 된다.

영농의 기계화는 정부시책으로 적극 지원되고 있으나, 이들의 영농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거의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운기나 기타 동력농기구를 소유한 농가가 전체 농가의 28.1% (145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농촌사회의 발전경향을 볼 때, 우리나라 농촌은 전체적으로 근대화의 문턱에서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단순한 농사를 통한 가계소득의 증진은 기대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는 발농사를 통해 부수입을 올리려고 하지만, 시세가 좋다는 품종의 집중경작으로 회소가치가 없어진다든가, 또는 농협이나 정부의 제도적인 농산물 가격의 보호조치나 농산물 저장법의 개발이 뒤따르지 못해서, 수요 공급의 실질적 균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러한 이유에서 농가소득은 소수농민을 제외하고는 전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70%).

50대 이상 농촌 인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핵가족화 현상—, 자녀들의 이농현상은 농사철의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동력 교환은 가까운 이

39) 서울이나 인접도시인이 토지를 사서 소지주에게 경작하게 하는 경우.



웃끼리(58.3%) 이루어지거나, 다른 지방에서 공급되는 임금노동자(23.3%)로 대체한다. 하루의 노임이 비싸므로,<sup>40)</sup> 가능하면 웃끼리 서로 품앗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대상지역은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이므로, 적어도 다른 농촌사회보다는 도시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그들의 전통적 의식구조도 다른 농촌사회 구성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조상숭배에 대한 그들의 의식을 보면, 제사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가능한 한, 간소하게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93.6%). 모든 격식을 다 갖추어 조상숭배를 하던 과거와는 달리, 간소한 의식에 따르고, 제사 시간도 9~11시 사이에서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고 있다.

가족구성원들의 제사참여의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 곧 직업을 가진 자녀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참석하지 않고, 친척이 모두 모이지 않더라도, 몇 어른들만의 의식 거행으로 마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외형적 농촌문화의 변화매체 중에서 무엇보다도 통신정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이라고 추측되며, 비록 농촌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통신정보매체와 문화용품은 대도시의 경우와 유사한 것이다.

549가구중 93.1%가 TV, 62.5%가 라디오, 31%가 신문을 통해 현대문화와 접촉한다. 문화용품을 보면, 대부분이 전기밥솥(69.8%), 냉장고(50.1%)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현대적인 통신정보매체의 영향은 교육부부이나 가족성원의 의식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곧 전통사회에서 중요시했던 가문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적합한 사윗감을 고를 때에는 가문(6.4%)이나 재산(1.3%)보다는 능력이나(44.8%) 인품(38.1%)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교육받은 자녀가 선택할 직업에 대한 부모들의 견해는 공무원(28.1%), 기술자(23.9%), 회사 사무직(18.2%), 학자(13.5%)의 순으로 되어 있다.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의 주업이 농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농업을 계승

〈표11〉 자녀 직업에 대한 부모의 희망

농업	공무원	회사 사무직	기술자	군인	학자	NA	계
12	154	100	131	20	74	58	549(가구)
2.2	28.1	18.2	23.9	3.6	13.5	10.6	100(%)

40) 하루 노임이 6,000~8,000원이며, 임금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다섯개의 식사대와 담배, 술 등을 계산하면 1인당 10,000원이 넘는 실정이다.

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반면에 회사 사무직이나 기술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42.1%나 되는 것을 보면, 이농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근대화 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농촌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전통적 관념인 친척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개방적이라는 점이다. 일가친척에게 차녀의 직장을 부탁했을 때, 경우에 따라 청을 들어주지 않아도 옳은 처사로 여기고 계속 상종을 하겠다는 의견(75.4%)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농민들이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 종전의 농촌생활방식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더라도, 그들의 의식구조는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관청이 결정한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책이 농가의 입장과 상충될 때에는 무조건 순종은 타당하지 않고(무조건 순종은 1.6%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사항으로 삼아 스스로 결정하겠다(62.1%)는 것을 볼 때, 과거의 절대적인 관료순배적 사고방식에서 점차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에는 각 면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의 단위조합이 있으며, 이 단위조합은 농민의 농촌생활을 뒷받침하는 농민의 기구이다. 그런데 농협 이용도를 보면, 금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많은 농민들(52.1%)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밖의 일로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그밖의 일로 이용하는 경우는 1.8%에 지나지 않는다).

농촌에서도 대가족구조 해체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대부분이 독립생활을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농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구대상 가구의 가족성원수를 볼 때, 6명 정도가 58.3%, 그 이하가 23.9%를 차지한다.

## 맺는 말

(1) 우리의 전통적 사회구조는 지배계층이었던 양반계급과 피지배계층이었던 상민-천민계급으로 이분화된 사회구조현상으로 말미암아 중간계층이 형성되기 어려웠던 것이 특징이다.

(2) 이러한 전통사회구조는 내적인 변화요인인 자연적 인구증가로 계층구조의 변화는 물론, 도시와 농촌간의 인구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변동의 외적 요인으로서 서양문화의 전래는 교육현대화를 통해 국민의 합리주의적 지향성과 사회참여의식의 필요성을 각성시키기 시작했다.

(3) 자발적인 근대화 노력은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제한되었고, 일본의 정치적 목적에 따른 피동적 근대화는 볼 수 있었으나, 1950년대 초반까지는 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동기를 찾기에 바빴다.

(4) 1960년대에 새로이 집권한 군사혁명 지도자들에 의해 그 이전에 조성되었던 국민간의 근대화에 대한 요구에 응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한국의 근대화는 공업화를 주축으로 하여 급속히 진행되었으나, 경제성장이 급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변화의 속도도 급속하여 다양한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거의가 누적되어 오고 있다.

(5) 1960년대의 근대화 작업이 광범한 국민적 지지기반없이 시작된 것은 근대화가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되는 데 대한 반발이었고, 이러한 반발이 특히 지식층에서 강했다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6) 근대화 과정에서 제기된 부의 편중현상, 곧 분배의 불공평의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의 근대화의 원활한 수행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7) 자원이 없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인력을 최고로 활용하는 길, 특히 과학기술인과 기술숙련공을 다수 양성하여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정책은 타당한 정책이었다.

(8) 부의 공평한 분배의 문제와 관련하여 근대국가들은 복지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도 확고하고 실효성있는 복지정책의 수립과 정착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종래의 복지사회정책에 의해 그 비경제성으로 말미암아(스웨덴의 연경제성장률이 2% 내외이다)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의 선택이 요구된다.

(9) 복잡다단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경쟁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유능하고 헌신적이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민주사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10) 윤리없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수용과 경제개발의 확대로 물질적 풍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전통문화가 아무런 선택 기준도 없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층의 방황과 비행이 바로 가치관의 공백기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11) 근대화에 따라서 인구의 도시집중, 심각한 이농현상이 농촌사회에 일으키고 있는 변화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앞으로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12) 현재의 농가의 계층구조를 볼 때, 1정보 미만의 소농은 감소추세에 있고, 1~2정보의 농가는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농의 경우는 변함이 없다.

(13) 농업의 기계화와 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소농이나 중농의 생활향상은 기대

할 수 없으며, 정부나 또는 농협등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요청된다.

(14) 농촌사회의 문화적 환경은 근대화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의 문화적 환경은 도시사회의 그것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문화적 환경의 격차도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15) 발달된 대중매체에 의해 농민의 의식구조도 변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숭배방식이나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전통적 가치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마디로 도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의 현재의 의식구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서, 농민이 도시와 동일한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 근대화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김경동, 현대의 사회학, 서울, 박영사, 1978.
- 2) Soh Ki Ho, *Problem des sozialen Wandels von 1945-1972*, Wien, 1974.
- 3) Han Woo-Keun, *The History of Korea*.
- 4) 조기준, 한국자본주의 성립사 연구, 서울, 아세아문제연구소, 한국사회과학총서(1).
- 5) 김영호, 한반도 서양기술의 수용.
- 6) 경제기획원, 한국통계연감.
- 7) 경제기획원, 사회통계조사.
- 8) Kim Dong-Hi, *Issues and Strategies for Agricultural Growth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II, No. 1, April 1979.
- 9)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54.
- 10) 한국은행, 경제연감, 1949.
- 11) 농협조사부, 농업연감, 1957~1971.
- 12) 김경동, 현대사회와 중간계층, 사회연구 제 2집, 서울, 사회과학연구소, 1979.
- 13) Kim Kee-Hyung, *A Proposal of Neotechnocracy, The Reconstruction of Humin Society*, Vol. 1, No. 1, 1977.
- 14) 문교부, 문교통계연감, 1980.
- 15) 김경동, 공업발전을 위한 준비태세, 행정논총 5권, 서울, 서울대 행정대학원, 1967.
- 16) 홍승직, 지식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삼영사, 1972.
- 17) 권오훈, 근대화를 위한 대학생의 의식구조, 정경연구, 1967년 4월호.
- 18) 장영식, *The Urban Koreans as Individual*, 전경련(全經聯), 1980년 1월호.
- 19) Yoo Do-Jin, *Social Problems Arising From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cal Revolution, 21st Century-Prospects and Problems* (ed. by Kee-Hyung Kim), Kyunghye University Press, 1980.
- 20) 김경동, 도시화와 의식구조, 신동아 1981년 4월호, 서울, 동아일보사.
- 21) UN통계연감.
- 22) 한국청소년 지도편람, 서울, 한국청년문화연구소, 1981.
- 23) 정원식, 한국청년의 심리적 발달의 특징, 청년연구 제 1집,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978.
- 24) 홍승직,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9.
- 25) 강학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 연구, 교육연구, 1970.
- 26) 강희창,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5.
- 27) 김인자-황응연, 한국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서강대 사회문제연구소, 1974.
- 28) 청소년 백서, 1980.
- 29) 황종건, 산업화에 따르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교육에 관한 연구, 계명대 출판부, 1974.
- 30) 윤병대,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방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영남대 논문집 1, 1967.
- 31) 김숙련, 가치관 추이에 관한 연구: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1975.
- 32) 송인국, 한국민족주의의 전개과정, 공주교대 논문집 7집 1호, 1970.
- 33) 최문환, 민족주의의 전개과정, 삼영사, 1980.
- 34) 차석기, 한국 민족주의의 교육의 연구, 진영문화사, 1976.
- 35) 정요섭, 학생운동과 지식인 역할의 아시아 아프리카형과 선진국형의 비교론적 고찰, 정경연구 5권 1호, 1969.
- 36) Seymour Martin Lipset, 뉴인텔리겐차와 대학사회, 정경연구, 18, 2.
- 37) 김태길,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유고사상과의 비교연구, 일조자, 1967.
- 38) 홍승직,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연구, 동아문화 연구업적 보고서(1961~1962), 1963.
- 39) 홍승직, 지식인과 근대화, 고대 출판부, 1967.

- 40) 김진균, 테크놀로지적 사회구조론, 현상과 인식 2권 3호, 1978.
- 41) 정길수, 한국 농촌에 있어서 농사기술 혁신의 수용과정, 경북대, 동양문화연구 1집, 1974.
- 42) 이만갑, 농촌 기술혁신과 농촌 변화, 연구보고 제 1권, 1974.
- 43) 노창섭, 한국인의 가치관, 이대문화논총 5, 1964.
- 44) 최흥기, 산업화 과정에 따르는 태도와 가치의 변화, 서울대 교양과정부 논문집.
- 45) Zapf Wolfgang, Theorien des sozialen Wandels, Neue Wissenschaftliche Bibliothek 31, Soziologie, 3 Auflage, Koeln-Berlin, 1921.
- 46) W.E. Moore, Social Change, Prentice-Hall Inc., 1963.
- 47) Handerson Gregory, Industrialization and Korean Political Development.
- 48) William Woodrupp, Impact of Western Man, A Study of Europe's Role in the World Economy 1950-1960, N.Y., St. Martin's Press, 1966.
- 49) V. Kerry Smith(ed.), Scarcity and Growth Reconsidere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1979.
- 50) W.E. Moore, Social Change, Prinston University, Prentice-Hall Inc., New lesson, 1964.
- 51) S.M. Eisenstadt,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 52) S.M. Eisenstadt, Transformation of Social Political, Cultural Orders in Modern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0, 5, Oct. 1964.
- 53) Seymour M. Lipset, Political Man: The Soci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Anchor Books, 1960.
- 54) Edward Shils, "The Intellectuals in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New States", John M. Kautsky (ed.), Political Change in Underdeveloped Countries: Nationalism and Communism, New York: John Willey and Sons Inc., 1962.